

News

IMF, 유럽·美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 '줄하향' 한국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 예측 때보다 0.4%포인트 낮춰...
주요국 전망치도 줄이며 글로벌 경기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국 성장률 중점 2.6% 유지

케이뱅크, KT 대주주회사 중단 위기에 유상증자 연기 연합인포맥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11일 신규 청약과 25일 주금 납입 등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기로...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위기

은행권, 보유 부동산산 처분 열풍... KB국민, 1396억원 최대 CEO스코어데일리
지난해 4대 은행의 투자부동산 규모는 전년 말 2조722억원 대비 16.8%(3482억원) 줄어든 1조7240억원으로 집계
9·13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 부동산산이 아닌 다른 자산운용 대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최종구 '카드사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 해소' 연합인포맥스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15년 4조8천억원 규모였던 카드업계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6조7천억원으로 늘어...

가득이나 힘드네..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소비자 울상 이데일리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을 시술의 수준에 따라 단순(2인2332원)·복잡(3만7716원)·특수(5만7804원) 추나로 구분
"추나보험은 환자 본인부담이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 문제가 힘든 상황"...보험사, 연간 563억~1447억원의 추가 지출

보험업계 계약 유지율 해마다 '뚝뚝' 아시아경제
2년이상 보험계약 유지율이 60%대...보험가입 고객 10명 중 4명기량은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파악
생보업계의 13회사 계약 유지율은 2016년 82.4%에서 지난해 80.7%로 25회사는 69.8%에서 65.5%로 매년 하락세

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 길이 멀다 한국일보
기업건수 3,400만건으로 어느덧 '국민보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오명
회에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고, 보험업계도 소비자의 편의 개선을 지지

자본권 '증권거래세 인하 뒤 외국인 고빈도매매에 대비해야' 연합뉴스
자본권, "증권거래세 인화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도"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Global Peer Valuation

구분	국가	기업명	시가총액		증가				등락률(%)				PER(배)		PBR(배)		ROE(%)	
			1D	1M	3M	YTD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1D	1M	3M	YTD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은행	한국	KRX BANKS INDEX	75,154	774	-0.3	5.4	5.9	2.2	5.3	5.1	0.4	0.4	8.6	8.4				
		KB금융	18,731	44,800	-0.4	6.3	-1.5	-3.7	5.5	5.3	0.5	0.4	8.9	8.7				
		신한지주	21,576	45,500	-0.2	8.3	18.6	14.9	6.6	6.3	0.6	0.5	9.0	8.8				
		하나금융지주	11,769	39,200	-0.9	6.5	10.7	8.1	5.0	4.8	0.4	0.4	8.7	8.3				
		우리금융지주	9,760	14,350	0.3	2.5	-3.0	-8.0	5.2	5.0	0.4	0.4	8.7	8.4				
	미국	S&P 500 BANKS INDEX	1,366,892	312	-1.1	0.2	7.7	11.9	10.2	9.3	1.2	1.1	11.7	12.2				
		JP Morgan	340,604	105	-0.7	2.6	5.2	7.4	10.8	10.0	1.4	1.3	13.4	13.7				
		BOA	278,469	29	-1.0	0.8	12.7	17.2	10.1	9.1	1.1	1.0	11.1	11.4				
		Wells Fargo	218,650	48	-1.5	-3.3	1.6	4.5	9.8	8.6	1.2	1.2	12.6	13.7				
		Citi Group	152,600	65	-1.3	5.1	16.5	25.2	8.7	7.7	0.8	0.7	9.5	10.0				
	유럽	Euro STOXX Bank	578,677	201	0.1	6.2	7.8	11.9	8.5	7.9	0.6	0.6	7.9	8.4				
		BNP Paribas	62,792	50	0.3	5.3	9.3	12.9	7.5	7.1	0.6	0.6	7.7	7.8				
		UBS Group	48,290	13	0.1	4.1	-1.8	2.3	9.7	8.6	0.9	0.8	8.6	9.6				
		Deutsche bank	16,997	8	-1.1	-5.2	-1.8	4.7	14.9	9.6	0.2	0.2	1.8	2.7				
		TOPIX BANKS INDEX	316,185	152	-0.4	3.7	2.1	3.5	8.2	7.9	0.5	0.4	5.6	5.8				
중국	CSI 300 Banks Index	1,045,316	6,339	-1.1	6.1	19.8	21.1	6.8	6.2	0.8	0.8	12.5	12.2					
	공상은행	297,591	0.9	-0.7	3.4	10.7	9.3	6.5	6.2	0.8	0.8	13.1	12.8					
	건설은행	224,769	1.1	-0.7	6.1	15.6	15.1	6.7	6.3	0.9	0.8	13.5	13.1					
	농업은행	194,375	0.6	-0.3	2.4	7.7	5.0	6.1	5.7	0.8	0.7	12.8	12.6					
	중국은행	161,833	0.6	-0.8	3.2	9.9	7.2	6.1	5.8	0.7	0.6	11.5	11.3					
보험	한국	KRX Insurance Index	45,589	1,600	-0.6	0.1	4.6	2.4	8.9	8.0	0.7	0.6	5.3	5.3				
		삼성화재	13,833	292,000	0.0	1.6	8.6	8.6	11.6	10.3	1.0	0.9	9.0	9.7				
		DB손해보험	4,807	67,900	-1.0	-2.2	0.1	-3.6	7.5	6.4	0.8	0.8	11.5	12.8				
		현대해상	3,406	38,100	-1.3	3.7	1.3	-7.2	7.8	6.6	0.7	0.7	9.2	10.2				
		메리츠화재	2,717	23,900	-3.0	5.1	9.4	9.4	8.8	7.5	1.2	1.0	13.4	14.5				
	미국	S&P 500 INSURANCE INDEX	564,176	393	-0.8	2.7	11.7	12.6	11.6	10.7	1.3	1.2	11.4	11.4				
		CHUBB	62,581	137	-0.4	3.7	7.3	5.7	12.7	11.9	1.2	1.1	9.4	9.5				
		METLIFE	42,407	44	-1.6	0.3	2.8	7.9	8.2	7.3	0.8	0.7	10.6	11.0				
		AIG	38,816	45	-0.5	6.5	9.2	13.2	10.2	8.9	0.6	0.6	6.8	7.3				
		Euro STOXX Insurance	358,400	282	-0.2	3.8	13.5	15.0	10.3	9.7	1.1	1.0	10.1	10.3				
	유럽	Allianz	98,376	232	0.1	5.0	16.1	17.4	10.9	10.2	1.3	1.2	12.4	12.5				
		AXA	63,305	26	-0.4	5.3	19.7	22.8	8.5	8.1	0.9	0.9	10.1	10.6				
		ING	49,644	13	0.2	8.3	15.2	20.2	8.5	8.2	0.8	0.8	10.1	10.0				
		TOPIX INSURANCE INDEX	115,282	945	0.5	5.8	4.4	3.2	9.5	9.0	0.7	0.7	7.2	7.2				
		Japan Post Holdings	52,074	12	-0.5	-1.2	0.4	1.7	12.0	11.9	0.4	0.4	3.3	3.2				
중국	CS All Share Insurance Index	-	1,693	0.1	16.2	39.8	41.9	-	-	-	-	-	-					
	중국 평안보험	219,831	11.9	0.7	15.8	35.5	35.4	13.3	11.7	2.6	2.2	20.6	20.8					
	신화생명보험	24,177	5.7	1.1	21.6	61.8	43.9	14.3	12.5	1.8	1.6	13.1	13.3					
	중국퍼시픽보험그룹	44,926	4.2	1.1	15.9	32.0	31.0	14.3	12.4	1.8	1.7	14.0	15.4					
	증권	한국	KRX SEC INDEX	21,292	691	-0.3	10.6	15.0	15.3	9.0	8.3	0.8	0.7	7.5	7.1			
미래에셋대우			5,122	7,780	-1.0	7.0	15.1	19.1	10.1	9.1	0.6	0.6	5.3	5.6				
NH투자증권			4,038	14,350	-0.7	13.9	11.7	10.0	10.9	9.6	0.8	0.8	6.8	7.3				
한국금융지주			3,906	70,100	-0.8	14.5	18.6	17.8	7.2	6.6	0.8	0.8	11.8	11.7				
삼성증권			3,251	36,400	0.3	9.6	15.6	15.6	9.9	9.1	0.6	0.6	6.0	6.2				
미국		S&P 500 INVST BNK & BRK	234,881	143	-1.1	4.0	7.6	13.1	10.3	9.4	1.2	1.1	12.4	12.6				
		JP Morgan	340,604	105	-0.7	2.6	5.2	7.4	10.8	10.0	1.4	1.3	13.4	13.7				
		Goldman Sachs	76,509	201	-0.9	2.8	14.1	20.1	8.5	7.8	0.9	0.8	10.7	11.2				
		Charles Schwab	59,306	44	-0.7	2.3	1.8	7.0	16.0	14.6	3.1	2.8	19.9	19.4				
		Euro STOXX Financial Service	107,606	440	-0.8	3.4	8.5	12.7	16.4	15.2	1.6	1.5	11.4	10.1				
유럽		UBS	48,290	13	0.1	4.1	-1.8	2.3	9.7	8.6	0.9	0.8	8.6	9.6				
		Credit Suisse	31,346	12	0.5	3.6	8.3	13.6	9.0	7.8	0.7	0.6	7.8	8.4				
		Deutsche Bank	16,997	8	-1.1	-5.2	-1.8	4.7	14.9	9.6	0.2	0.2	1.8	2.7				
		TOPIX SEC&CMDTY FUTR In	37,533	316	-0.9	-0.4	-2.6	0.3	11.2	10.1	0.6	0.6	4.8	5.6				
		Nomura Holdings	12,864	4	-1.1	-0.7	-6.0	-2.8	-26.3	10.6	0.5	0.5	-2.4	4.5				
중국	ORIX	19,429	15	-0.6	7.4	0.5	1.5	6.4	6.1	0.7	0.7	11.6	11.1					
	Daiwa Securities Group	8,302	5	-0.6	-1.8	-6.9	-2.5	13.0	11.3	0.7	0.7	5.3	5.7					
	SZSE FINANCIALS INDEX	200,996	1,182	0.5	9.5	38.3	47.4	13.1	13.1	1.3	1.3	9.7	9.7					
	CITIC Securities	42,738	2.4	-0.6	4.1	29.3	40.0	17.8	15.9	1.4	1.3	7.7	8.1					
	Haitong Securities	23,054	1.4	-1.8	6.7	30.4	44.3	15.3	13.7	-1.0	0.9	6.5	7.0					
Huatai Securities	25,677	2.1	-2.0	7.8	20.5	29.7	16.1	14.2	1.2	1.1	7.8	8.1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 중 메리츠화재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김고은)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